

사 설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며 공화국은 끝없이 룡성번영할것이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력사에서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세계의 정상에 우뚝 솟아 불패의 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세기적인 비약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위대한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권위가 최상의 경지에 서 빛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거창한 대진군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공화국이 창건된 력사의 이날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부강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넓은 앞길이 열리게 되었다. 해외동포들이 누리는 값없는 삶과 권리, 크나큰 민족적공기와 영예도 이날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이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건국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전체 조선민족의 총의에 따라 주제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력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진정한 자주의 나라, 인민의 국가가 건설되게 되었으며 그레로부터 이 땅

에서는 인민의 몽친 힘 노도 내리며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장엄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창건된 이후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신 영웅조선으로, 빈터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역센 나라를 펼친 천리마조선으로, 가장 수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위용떨칠 수 있었다.

전인미답의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명 승리에 이끄시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세워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와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받들어 공화국을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로 빛내 이 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신조였다.

일심단결을 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모든 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공화국을 사회주의의 불패의 성새로 전변시키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암살책동이 극도에 달한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되고 강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리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경사로운 공화국창건기념일

을 맞이한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창공높이 펄펄 휘날리는 랑성색기울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오늘 공화국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에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며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시려는것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서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밝히신 사상리론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필승의 보검으로 되고있다.

열화같은 인민사랑, 무비의 담력과 배짱, 결사의 의지, 불철주야의 헌신지도강행군으로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함포역정을 앞장서서 헤치시며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놓으시고 온 나라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를 창조하도록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공화국은 자주적대가 강화

고 자기식의 발전궤도를 따라 굴함없이 돌진해나가는 존엄높은 강국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와 전횡이 란무하는 현 세계에서 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하여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몰랐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한데다가 공화국이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사소한 곡절과 탈선도 없이 승승장구해오는 근본비결이 있다.

령도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공화국이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세계정치정세흐름을 주도하며 자주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고 강국의 주인된 인민의 자부심이 차넘치고있는 긍지높은 현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건설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가사보다 국사를 앞세우고 나라와 어려움을 함께 하며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한마음한뜻으로 만드는 전체 인민의 자각적열성과 헌신적투쟁을 떠나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서로 위해주고 감싸안아주는 미덕과 미풍이 차넘치고 동지적협조와 단결의 힘에 의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 대중적영웅주의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와

제힘으로 자기를 지킬 방위력이 없이는 자주정치도 실현할수 없고 언제 가도 부국강병의 대업을 성취할수 없다.

자력으로 살아나가는것이 정당하고 보람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나라들이 결점이 막아서는 도전과 난관을 제힘으로 뚫고 나갈 의지가 부족하여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공화국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는 날로 굳건해지고있다.

경쟁이든 시련속에서도 전진과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공화국의 현실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시조 된다.

공화국은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전도양양한 국가이다.

인민은 사회주의국가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공화국인민의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힘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가사보다 국사를 앞세우고 나라와 어려움을 함께 하며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한마음한뜻으로 만드는 전체 인민의 자각적열성과 헌신적투쟁을 떠나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서로 위해주고 감싸안아주는 미덕과 미풍이 차넘치고 동지적협조와 단결의 힘에 의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 대중적영웅주의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와

과 믿음은 공화국을 주체의 강국으로 전변시킨 근본원천이다.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은 역대 자금이든 재부를 가지고도 이룩할수 없는 놀라운 전변을 안아오는 발전동력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인민은 령도자의 믿음을 한생의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 몸과 마음 다 바쳐 보답하는 여기에 공화국의 불가항력의 원천이 있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에서 빛내어주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사회주의의 기초이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신성시하고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기풍이 국풍으로 확립된 국가만이 진정한 강국으로 될수 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공화국이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절대불변의 원칙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의 림장이 확고히 지배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주권행사와 국가사회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하고있으며 모든 생산과 건설이 인민들의 편익보장을 첫차리에 놓고 그들의 번영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고있다.

공화국은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이고 공화국정권의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이다.

형언할수 없는 고난속에서도 인민의 리상거리들이 려리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큰물과 태풍파해를 입은 재해지역 인민들의 불행을 가시기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것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이다.

평범한 나날이나 시련의 시기에나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것은 결코 조건이 유리하고 모든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다.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 행복의 리전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활동을 지향시켜나가는 공화국이 아니고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것이다.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하는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인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리러모시고 경에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공화국의 강성부흥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해주시고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내여나가는 절세위인들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공화국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이시며 온 겨레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다.

누구나 조국은 곧 경에하는 원수님의 품이라는 신념을 억척으로 새기고 그이를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이 세상 제일 위대하고 제일 강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는 크나큰 긍지와 민족적자존심, 든든한 배심을 안고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절세위인들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세기를 이어 이 땅우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전민송가로 끝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이고 운명이며 미래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의 노래》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내 나라
이 세상 그 어디 찾아볼수 있잖아

볼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는 나라를 빼앗기고 산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빛을 선사주고 반일애국사상으로 계몽시키며 반일성전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깊은 뜻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노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황일의 피바다 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고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새 조선에 인민의 주권을 반석같이 다져주시였다.

《조국의 품》

모란봉에 붉게 띠는 노을인가요
대동강에 곱게 비친 무지개인가요
노을처럼 아름다운 조국의 품은
내가 자란 정든 집 고향입니다

그이께서는 동무들에게 모란봉의 소나무는 곳곳이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놈들이 아무리 줄폭탄을 퍼부어도 아버지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인민군병사들이 지키고있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은 절대로 불태울수 없다고 이야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엔 불라는 모란봉이 아니라 노을이 붉게 피는 아름다운 모란봉이 불꽃의 조선의 상징으로, 승리한 조국의 모습으로 안겨오시였던것이다.

볼태울수도 불탈수도 없는 사랑하는 조국은 곧 수령님의 품이라는 굳은 신념과 의지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에 담으시였다.

《조국찬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어준
정든 고향 집뜨락 조국여러라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라는 노래구절에는 바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넉넉, 인민의 리상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 노래와 함께 공화국기 무궁도록 나뉘는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넉넉,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거이어 이루고 공화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듦리라는 역척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으신분이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은 위대하고 숭고한 그 세계를 심장우에 안아보며 노래한다.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본사기자 주일봉

천만심장에 소중히 간직된 공화국기발



수기 박사메달과 나누는 대화

내 나이 어린 60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현대판 《홍길동》 선생이라고 부른다.
현대판 《홍길동》!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부름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다.
그것은 위대한 김일장군님께서 나에게 정을 담아, 믿음을 담아 안겨주신 이름이기때문이다.
지금도 주제99(2010)년 9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벼움던 영광의 그날을 잊을수 없다.
그날 자장도의 어느 한 공장을 찾으며 통합조종실에 틀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곳에 있던 나를 대변에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지난 6월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과일말린련공장에서 만났던 동무인데 오늘은 여기서 또 만났다고, 동무는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말씀하시며 호랑하게 웃으시였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나

대학에서 또 큰일을 했다 시며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예로부터 복은 쌓으로 오지 않는다 했건만 과학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우는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나에게 같은 행복이 이렇게 거듭 차려졌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다. 내가 해놓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몸을 영웅으로, 박사로서 키워준 조국을 위해 공민으로서 응답 할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지금도 가끔 벽에 걸여놓은 박사메달과 그것과 이어져있는 삼색천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군한다.
우리 나라 공화국기발을 형상한 성스러운 그 삼색천과 함께 빛나는 박사메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조국을 부강하게 하는 데 많은 람구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국기는 더욱 빛날것이라고...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나는 영원한 청춘의 메기와 정열을 안고 조국을 위해 뛰고 또 뛰는 현대판 《홍길동》으로 살겠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자동화체계응용연구소 소장 정일철



애국의 넋을 심어주는 명곡들